

미, 미얀마 쿠데타 규정...제재 압박

모든 원조 프로그램 재검토

로힝야족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

구금자 석방 등 국제적 협력 촉구

효과 미지수...바이든 고민 커질 듯

미국은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외 원조와 제재를 무기로 압박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직접 성명을 내고 군부의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이 실행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번 사태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데타로 규정되면 미국의 일부 원조에 자동의 제한이 가해진다. 또 모든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수 이슬람 민족인 로힝야족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군부 지도자는 물론 그들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부가 부정 선거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부정행위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미얀마에 거의 15억 달러를 제공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궤도를 뒤집은 이들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을 지지하기 위해 역내와 전세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군사적 해법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장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도 행정부를 조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치 매킨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 뒤 제재가 정당하다는 신속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군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유엔의 조치를 포함해 미국이 군부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빠른 대응을 모색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쿠데타를 조직한 상당수 군부 지도자의 경우 과거 로힝야족을 향한 잔혹 행위 책임론이 제기돼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은 상태다. AP통신은 "군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벌칙은 효과가 작을 것 같다"며 "미국은 이미 군부 다수를 제재했고 군 전반의 지원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9년 1억 3700만 달러를 원조했다. 하지만 대부분 건강,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등에 들어갔고 이들은 미국의 원조 재검토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들이다. 뉴욕타임스는 마크 밀리 미합중의 장이 쿠데타 직후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 군 당국자와 접촉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 협안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미얀마 군부를 지나치게 몰아붙일 경우 오히려 이들이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난관을 만났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러 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 3년6개월 실형

2014년 사건 집행유예 취소

독일서 독극물 증독 치료 받고 귀국한 뒤 체포돼 구속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실형을 살게 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행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

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타스 통신은 나발니가 해당 사건과 관련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제'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5억9000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2017년 이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법원 판결을 자의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러시아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수백억 횡령에 여신도 농락한 희대의 '가짜 부처'

중국 사이버 교주 엽기 행각 충격

"10년 동안 2억 위안(한화 345억원)이나 횡령하고 여신도들을 농락했다니..."

종교 활동이 사실상 통제된 중국에서 '살아있는 부처' 행세를 하던 가짜 스님의 엽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중국 사회에 던진 충격파가 크다.

3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3000여 명의 제자까지 거느린 가짜 스님 왕싱푸 사건이 퍼지면서 중국인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중국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미신 숭배를 금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집회를 억제하기 위해 종교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교 창건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전대미문의 사이버 교주 사건이 터지자 중국 정부는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왕싱푸의 가짜 스님 행각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

려진 것은 최근 상동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이 왕싱푸에게 사기와 강간 등의 죄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0만 위안(34억원)을 선고하면서다.

교도관 출신으로 '가짜 부처' 행세를 그의 행각은 한편의 사기 영화 주인공을 방불케 했다. 왕싱푸는 덩샤오핑(1904~1997)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1980년대에 기공 수련과 치료가 인기를 끌자 승려 행세를 하며 '티베트 불교'라는 이름의 사이버 기공법을 만들어 사기를 치기 시작했다.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우상화하며 이 기공법을 선전해 지난시와 청두 등에서 한 달에 1인당 5000(86만원)~7000 위안(120만원)씩 수강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왕싱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자신이 고안해냈다는 '밀교 기공법'을 토대로 '고대 요가 응용 연구소' 등을 차려 수강생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팬데믹 때문에 공기 맑아져 지구 더 더워졌다

미국 대기연구센터 연구 결과

햇볕 반사 안돼 더 많이 쏟아져

코로나19 때문에 지구 기온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는 이런 논문을 지구물리학회 연구회보에 2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세계 대유행)에 따른 봉쇄 조치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모델 분석으로 2020년 기온과 비교했다.

그 결과 미국 동부, 러시아, 중국의 일부 지역의 기온이 팬데믹이 없는 경우보다 섭씨 0.3~0.37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차의 원인은 경제활동 차질로 석유나 석탄 사용이 줄어들어 배출되는 검댕, 황산염 입자가 감소한 데 있었다.

공기가 맑아진 까닭에 햇볕이 반사되지 않고 지구에 더 많이 쏟아졌다는 얘기다. NCAR의

기후학자 앤드루 게틀먼은 "오염물에 냉각 효과가 있어 공기가 깨끗해지면 실제로 지구가 더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다. 게틀먼은 팬데믹 때문에 탄소배출도 감소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공기정화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검댕 같은 오염물질은 일주일이면 가라앉지만 탄소는 대기에 한 세기 이상을 머문다.

올해 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 마비로 탄소배출도 줄긴 했으나 대기 중 전체 탄소량과 비교하면 새 밭의 피라는 분석이다. 지구 기온은 공기정화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업화 이후 축적된 탄소배출의 영향으로 관측 이래 최고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기후변화 화학자 케빈 슈미트는 공기정화 효과까지 겹쳐 지구 온난화에서 신기록이 나올 조짐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또 폭발한 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십'의 시제품 SN9이 2일 텍사스주 보카치카 발사 기지에서 시험비행 중 폭발하고 있다. 스타십 시제품 SN8도 지난해 12월 고도 비행 뒤 착륙 과정에서 폭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홍콩보안법' 탓에 대만 거류 홍콩인 최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인의 대만 거류 허가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내政部 이민서(출입국 관리소) 통계를 인용, 지난해 대만 거류 허가를 받은 홍콩인이 1만813명으로 전년도 전체 허가자 수인 5858명을 훨씬 웃돌았다고 보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허가자가 2027명으로 월별로는 역대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어섰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어 이민허가자는 전년도(1474명)보다 102명이 늘어난 1576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홍콩보안법 시행 때문으로 풀이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홍콩인이 대만에 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홍콩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최근 보고서에서 홍콩마카오관계조례 18조에 따라 홍콩인이 대만에서 자립하도록 취업 협조 등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홍콩마카오관계조례는 18조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안전과 자유에 간박한 위험이 있는 홍콩-마카오 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구 대인동, 싼 땅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유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문의. 010-3605-500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